

비운의 체조스타 김소영, 美서 감격 학사모



김소영(사진 왼쪽)씨가 11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마스터스 칼리지에서 학사모를 썼다. 오른쪽은 지난 3년동안 김씨의 손과 발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어준 제니 시먼스양.

'비운의 체조선수' 김소영(38)씨가 최근 미국에서 감격의 학사모를 썼다. 고교 1학년이던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훈련장에서 메달획득의 꿈을 이루기 위해...

김병순·정미향씨 농촌공사 '대원상' 수상



한국농촌공사가 수여하는 제14회 대원상(大願賞) 수상자로 전남본부 광주지사 김병순(51)씨와 담양지사 정미향(36)씨가 선정됐다. 김씨는 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친과 폐암 3기인 모친의 병수발을 8년째 해오는 한편 월급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금으로 기탁해 오고 있다.

인사

-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관리실 정책상황팀장 차영환 ▲소득세과과장 안택순 ▲인력개발과장 김정운 ▲국제과과장 이상원 ▲국제경제과장 송인창 ▲EITC 추진기획단 장재형 ▲대통령비서실 윤태웅 ▲대통령비서실 고경모 ▲대통령비서실 김이태 ▲대통령비서실 김후진

판매상담 중 가출소녀 귀가시킨 LG텔 판매사 유동희씨 '선행상'

휴대전화를 사러던 청소년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설득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유동희(24·LG텔레콤 콘앤콘 총장점)씨가 광주시 동구청(청장 유태명)으로부터 선행상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말 LG텔레콤 행사에 당첨된 A(여·18)양이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에 선듯 대답을 하지 못하자 A양이 가출한 것을 눈치챈다.

유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며 "흔하지 않게 부모님에 대해 상담한 A(여·18)양이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에 선듯 대답을 하지 못하자 A양이 가출한 것을 눈치챈다.

이후 유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유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5·18 민주묘지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용수 할머니

"불행한 과거 증언해야 후손이 행복"

"말로만 들었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와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훌륭한 일을 한 분들, 다시 태어나면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용수(80·서울 서대문)씨는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열었다. 이씨는 묘역을 참배하는 동안 각 묘비와 사진을 하나씩 쓰다듬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이 잠드세요"를 중얼거렸다.

이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앞으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가 지났어도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에 대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아직까지 최초 발표 명령 지휘 계통과 정확한 사망자 수 등 진실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나눔과 참여로 화합하는데 최선"

신임 장숙희 순천 자원봉사센터 소장

최근 취임한 장숙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센터로 거듭나는데 중심에 설 각오"라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 소장은 여권신장을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다. 장소장은 이같은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과 법무부 장관 감사패 등 20여차례에 걸쳐 표창과 감사패 등을 받았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 소장은 여권신장을 위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다. 장소장은 이같은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과 법무부 장관 감사패 등 20여차례에 걸쳐 표창과 감사패 등을 받았다.

영암바둑대회, 일반부 갑조 배경수씨 우승



배경수(왼쪽)가 배경수(오른쪽)와 바둑대결을 벌이고 있다. 배경수(오른쪽)가 배경수(왼쪽)와 바둑대결을 벌이고 있다.

제1회 영암군수배 바둑대회가 지난 12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영암군바둑협회(회장 이만구) 주관으로 김일태군수, 유선호 국회의원, 신락현 군의회 의장과 바둑 동호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반부 갑조(1~4급) ▲우승 배경수(금정면) ▲준우승 박성호(삼호) ▲3위 이민() △일반부 을조(5~8급) ▲우승 김진중(군정) ▲준우승 임윤호(군서) ▲3위 조순호(덕진) △여성부 ▲우승 전현림 ▲준우승 이미영 ▲3위 김은숙 △학생부 ▲우승 최재홍(삼호서초) ▲준우승 노정우() ▲3위 한지선(영암여중) △초등부 고학년 ▲우승 이현수(삼호서초) ▲준우승 황진우(영암초) ▲3위 박결() △초등부 저학년 ▲우승 이준선(삼호서초) ▲준우승 최승환() ▲3위 여도훈() /영남=김현남기자 hnkim@

"5월 정신 되새겨 공정한 대회 만들 것"

'5·18 전국태권도대회' 개최한 윤관석 광주협회장



지난 11일~오는 18일까지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9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시장기념 5·18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윤관석(60)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2천300여명의 선수들이 송고한 '5월정신'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5·18 광주태권도대회가 학생을 대하기 때문에 홍보물 상영과 사진 전시를 통해 적잖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이 많지 않아 5·18정신을 홍보하고 계승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미비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태권도 9단인 윤회장은 40여년을 태권도와 함께한 태권인으로 전남체육관 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어린이 뿐만 아니라 주부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태권체조를 보급하는 등 태권도를 생활속에 심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회장은 "내년에는 참가 선수들에게 5·18정신 계승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5·18광주태권도대회가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모금회, 의류 6천점 복지시설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이랜드로부터 기탁받은 의류 6천점을 사회복지시설 89곳에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농협광주 '광주교육 사랑' 쌀 300포 전달



신성수 농협광주지역본부장(오른쪽)은 최근 '광주교육사랑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에게 20kg들이 쌀 300포를 전달했다.

한국전기공사협 광주지회 '전기인 체육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회장 윤보선)는 지난 12일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회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7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우성(전 동산조경 대표)씨 차남 용현(전남대 의대)군 명재천천장녀 수연양=19일(토) 오후 1시 그랑시아웨딩타워 1층 다이아몬드실. ▲이명자씨 장남 최세웅군 실제룩씨 장녀 수호양=20일(일) 오후 1시 담양리조트.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

- 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파워복지연구회 장애인보장구 무료 상담 및 보급=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뒤 무료 보급. 515-7668

- 관. 061-371-8292 ▲홍동 32회 동창회(회장 김성근) 모임=16일(수) 오후 8시 화니콘나물 삼겹살. 523-2550 ▲전남대 공대 토목과 동창회(회장 정인제) 정기총회=18일(금) 오후 6시30분 상무리조트컨벤션 웨딩홀. 374-8181 ▲동중 7회(회장 주진수) 추월산 등반 행사=20일(일) 오전 9시 삼복회관. 011-605-9000

- 남 청년이화회(회장 이진우) 월례회=15일(화) 오후 7시 지원 회의실. 225-5631 ▲동래정세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정한영) 이사회=16일(수) 오전 11시 조선의 땅. 362-7092

-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광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가사도우미 교육 참가자 모집=18일까지 오후 2시~4시. 가전제품 사용법·도우미 예절 등 교육. 문의 266-8500 ▲(사)미륵대도 대명문화원 댄스 동아리 회원모집=초·중·고 대학생 010-9871-3648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자원봉사자 모집=장애인 가정 방문 컴퓨터 AS, 교통비 지급 524-186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담양장애인사랑봉사회(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중증장애인에게 봉사할 차량·후원·말벗 봉사

- 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음 ▲최명훈씨 별세 기뻐·기주(개인사업)씨 부친상 박철재 방부상=발인 15일(화) 금호재계식장 101호. 227-4385

광주에서 30분 이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 특별분양 분양문의 (062)521-1100